

일본의 고도육성 사례

이충훈 | 공공디자인센터장

송두범 | 공간계획연구부 연구위원

I. 사례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고도로 지정된 공주시의 고도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선진외국도시의 고도육성 정책 및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함
- 일본의 선진 고도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사례를 검토하여 고도추진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적 대응

2. 조사개요

조사국가 및 조사기간

| 조사국가 | 조사기간 |
|------|----------------------------|
| 일 본 | 2010. 10. 17 ~ 10. 22(6일간) |

방문기관 및 주요인사

| 지역별 | 방 문 기 관 |
|--------------|--|
| 일 본 | 가나자와시청, 교토시청, 나라시청 |
| 공식면담 주요인사 | ○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시 ○ 교토부 교토시 ○ 나라현 나라시, 아스카촌 외 |

II. 고도보존 및 육성사례

1. 가나자와 현황

- 가나자와시(金澤市)는 일본열도 서부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호쿠리쿠 지방에 자리잡고 있는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로 면적 467.77Km², 인구 457,234명의 호쿠리쿠 지방 최대 규모의 도시
 - 시의 남북으로 각각 하쿠산 국립공원과 노토반도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호쿠리쿠 지역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 특히 가나자와성이 위치하고 있는 성지 부근은 각종 관청, 금융기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임.

- 가나자와시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546년 불교종파인 잇코오슈 문도가 현재 가나자와 성지가 위치하는 곳에 오야마보오라는 사원을 건립하면서부터임. 가나자와에는 지금도 노카쿠¹⁾가 숨쉬고 있는데, 이시카와 현립 노카쿠도에는 국공립 노가쿠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노무대가 있음. 이곳에서 중견 노가쿠사의 양성과 예능강좌를 여는 한편 노와 교겐의 정례발표회, 노를 즐기는 밤 등을 개최하여 노가쿠의 보급에 힘쓰고 있음. 또한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게이샤문화는 현재까지도 동(東;히가시)·서(西;니시)·주계정(主計町) 등 3곳의 차옥(茶屋;차야)에 옛 모습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약 50만 명의 게이샤들이 차옥에서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음.
- 노나 차노유²⁾ 등의 전통예능이 번성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물건들, 즉 비단직물과 염색, 도자기, 과자 등의 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음. 가나자와에는 일본 민속의상 기모노에 꽃과 새 등의 문양을 염색하는 가가유젠, 가가유젠의 장식 등에 쓰여서 발달한 가가자수, 흔히 샤미센이라 통칭되는 일본 전통

1) 일본의 고전 예술 양식의 하나로 피리와 북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추는 가면 악극.

2) 손님을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는 것

악기 산젠, 금을 종이처럼 얇게 늘린 것으로, 나무나 금속 등에 붙여 금의 호화로움을 곁들이는 공예품인 가나자와 금박 등의 전통공예산업이 현재까지 보존·계승되고 있음.

- 2001년 한 해에만 7백여 만 명이 가나자와를 방문하였는데, 인근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한 연계관광이 가능하고, 에도시대부터 다양한 전통문화가 계승되어 오고 있기 때문. 도시 및 가로구조와 문화재 등을 옛 모습 그대로 지켜 내려와 인위적이지 않은 도시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됨. 도심 중심에 위치한 켄로쿠엔은 일본 3대 정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정원으로 일본의 특별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나자와성과 함께 가나자와시의 대표적인 관광 매력물임.

2. 가나자와시의 전통환경 보존제도

-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이하 전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되면서, 가나자와시의 역사경관과 마을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최초의 경관보존조례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전통환경 파

괴를 방지하고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전통환경을 형성하여 전승하도록 제정되었음. 가나자와시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전통환경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의 건축·토지형질변경·목죽(木竹)의 벌채 등에 대한 신고, 조연, 지도, 권고 등을 실시하였음.

- 이후 1975년 중앙정부에 의해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이하 전건지구)제도가 성립되어, 가나자와의 지정 후보지로는 동차옥가가 물망에 올랐음. 지정 의욕을 보였던 당시 가나자와 시장이 전건지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1977년 ‘가나자와시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보존조례(이하 가나자와시전건지구조례)’를 제정하였음. 전건지구 내에서는 ①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제거, ② 건축물 등의 수선, 모양교체 또는 색채 변경으로 외관 변경, ③ 택지의 조성 및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④ 목죽의 벌채, ⑤ 토석류의 채취, ⑥ 수면의 매립 등의 현상변경행위에 대해 시장 및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나자와시의 전건지구 지정은 이후 수많은 논란을 거쳤음. 결국 2001년 동차옥가가 최초로 지정되고, 같은 해 중앙정부에 의해 중요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3년 주계정차옥가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1989년 ‘가나자와시전통환경보존

조례'는 '가나자와 전통환경의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에 관한 조례(약칭: 경관조례)로 변경되었음.

- 종래의 전통환경보존조례에서는 전통환경보존구역만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경관조례에서는 '전통환경보존구역' 뿐만 아니라, '근대적 도시경관창출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³⁾. 지정구역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준'을 책정하고 시민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민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삼는 도시경관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또한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및 목죽을 보존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보존대상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변경, 목죽의 벌채, 소유권 이전 시 이를 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가나자와시에 전통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6개 구역, 1,887ha로 매우 광범위하며,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은 13개 구역, 154.4ha에 이르고 있음

3) 전통환경이란 수목, 하천, 대기와 같은 자연경관을 포함하여 역사적 건조물, 유적 등이 일체가 되어 형성된 시민환경을 일컫으며, 이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구역을 전통환경보존구역이라고 한다. 근대적도시경관이란 전통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근대적 도시기능과 일체를 형성하는 시민환경을 일컫으며, 이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구역을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이라고 한다.

- 한편, 시지정보존건조물은 현재 29개가 지정되어 있음. 또한 가나자와시는 1994년 ‘가나자와시 전통 마을거리보존조례(이하 전통마을거리보존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인 마을거리를 귀중한 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총 35.54ha, 10개의 보존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43개의 전통마을거리 보존 건조물이 등록

〈표 1〉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 관련제도

| 명칭 | 내용 | 비고 |
|--------------------|---|--|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제도 | -보존지구에 대한 보존 계획수립 -보존지구 보존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 -1977년 제정 -동차옥가(2001년)와 주계 정차옥가(2003년) 2개소 지정 |
| 경관제도 | -전통적환경보존구역 및 근대적도시경관창출구역 지정 -지정구역의 경관형성 기준 책정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보존대상물 지정 -조망경관의 보존 | -1989년 전통환경보존조례를 개정, ‘가나자와시 경관조례’제정 -전통환경보존구역(36구역/1,887ha) -근대적도시경관구역(13구역/154.4ha) -29개 보존건조물 |
| 전통마을 거리보존 조례 | -전통마을거리보존구역 및 보존건축물 지정 -각 구역 내 보존기준 설정 -보존사업 경비보조 | -1994년 제정 -총 35.54ha, 10개 구역 지정 -43개 보존건조물 등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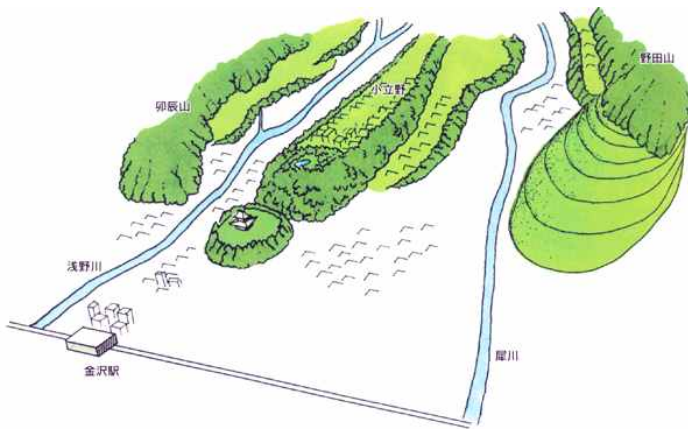
출처: 이소영, 2005, p.64.

- 전통적 건조물 집락군에 대한 면적인 지구/구역제도 뿐만 아니라, 가나자와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의 점적인 문화재에 대한 보존제도도 있다. 현재 가나자와의 유형문화재로서 건조물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지정 10건, 이시카와현 지정 18건, 시 지정 6건으로 총 34개의 건조물이 있음.

3. 가나자와시 경관정책

- 가나자와시의 경관정비는 단순히 관광객의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생활향상, 환경미화, 문화예술, 기회창출 등 정주환경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시행.
- 가나자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을 받지 않아 전통도시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인구의 유출이 매우 적고, 공간구조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해 일본 최초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를 구축하고 있음

- 경관정책의 기본방향은 전통건축물과 현대적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과 보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옛마을 풍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추구
- 가나자와시의 도시경관관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음
 - 첫째,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적인 정책의 추진
 - 둘째, 시민과 사업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진행



[그림 1] 가나자와 경관 구조

○ 역사문화경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1968년 : 전통환경보존조례, 1974년 : 문화재보호조례, 1977년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보존조례, 1989년 : 전통환경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1994년 : 코마치나미 보존조례, 1997년 : 사면녹지보존조례, 2002년 : 조망경관보존조례, 사찰풍경보존조례, 2005년 : 야간경관보존조례, 가로경관보존조례

1) 옥외광고물 조례

-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경관을 가꾸고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과 지역공무원, 지역기업인, 지역상업인 등을 모두 포함하는 '사람'임
- 따라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계획·설계·시공이라는 하나의 흐름과, 이 흐름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집행되도록 하는 행정적 흐름이 필요함.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전제

가 되어야 함. 이 세 가지 흐름이 경관조례와 같은 하나의 제도적 체제로 명문화 된다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음

- 옥외광고물 관련법규 제정목적 - 아름다운 경관 유지
 - 매주 1회 광고물 심의회를 개최하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심의회에서 개선을 유도
- 녹색지역의 경관에서는 건축물의 색도 동일하게 유도하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색채를 가나자와 지역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며, 강제성은 없으나 주민의 90% 정도가 자발적으로 참여
- 야간경관지역에서 상업지역은 밝게, 그 외 지역은 어둡게 조절

2) 마을만들기(마찌즈쿠리) 협정

- 가나자와시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조례를 만들었고, 옥외광고물조례를 비롯하여 여러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음. 그렇다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관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적 수단으로써 경관을 관리해왔지만, 일본은 가나자와시에서 행하는 것처럼 규제보다도 유도과 참여를 통하여 경관을 함께 보전하고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임. 이는 지역의 경관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그 실효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가나자와시에서는 주민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가나자와시 마을만들기조례'로 일컬어지는 조례 두개를 2000년에 제정 '가나자와시에서 시민참여계획에 의한 마을만들기추진에 관한 조례'는 시가화구역내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고, '가나자와시 토지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는 시가화구역외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조례의 특징은,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목표로 하는 장래상을 그리고, 마을만들기 규칙을 정하여 실현해나가는 체제를 정하고 있다는 것임. 즉, 마을만들기 규칙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개성을 부여하거나 만들어가며,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개성이 풍부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 등을 조례화 한 것임.

3) 마을만들기 조례의 이념과 구성

- 마을만들기조례의 기본이념은,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여기에 참여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인식하고, 시와 시민·사업자의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협동하여 행해야 하며, 시민 스스로에 의한 마을만들기 참가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시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 조례의 구성은 총칙, 가나자와 마을 만들기 심의회, 주민 등에 의한 자주적인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잡칙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등에 의한 마을만들기 계획의 책정, 마을만들기 협정의 체결, 개발사업의 협의절차가 조례의 중심부분으로 되어 있음.
- 마을만들기 계획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은 시장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에 의해 사업자에게는 마을만들기 협정의 준수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함.
- 협정 체결사례로 니시차야가이지구(西茶屋街지구)의 '역사적 찻집건축의 보전'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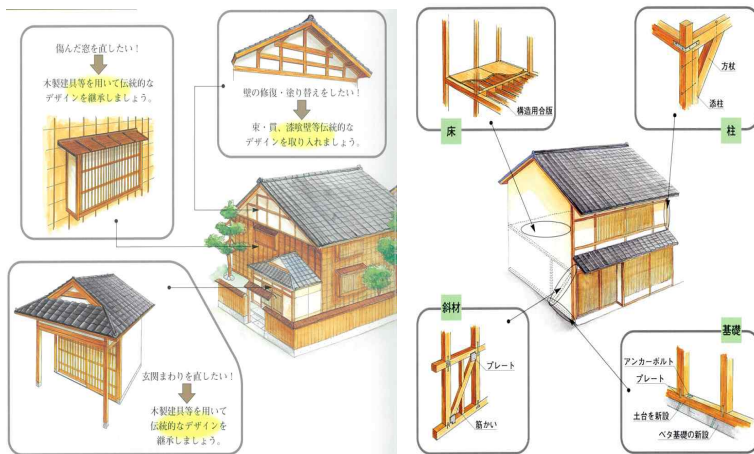
정이 체결되었는데 적용구간은 길이 약 150m임. 협정은 가로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배려하고 지붕과 창틀을 이용한 역사적인 찻집건축을 보전하여 전통적 의장을 계승하고, 가나자와의 정서가 풍부하게 느껴지는 가로를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방침으로 하고 있음.

- 여기에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댄스홀, 파칭코 등이 들어서지 않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벽면선을 정비하기 위해 벽면위치의 제한 및 높이 제한 등을 정하고 있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네온등 및 회전등,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차야가이지구의 풍정(風情)을 느낄 수 있는 안동형 안동(あんどん) : 각등(角燈) 혹은 사방등(四方燈)으로써 막대에 달아 내거는 전통적 형태의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바닷가와 시내도심의 사인형태는 구분하여 설치.
-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형성사업은 고속도로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며, 시에서는 청소도구 및 음료수, 타올 등을 지원.
- 가나자와 주변환경의 조화를 위한 도로표식 개선 - 도로주변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안내표식 개선, 문자축소, 안전성 검토, 안내사인의 크기를 축소.

- 가나자와 마을 가꾸기 중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
- 설계자(연출가) - 시민(주역) - 사업가(기업, 지역단체, NGO) - 시(행정, 조정자 역할)가 협력을 통해 활동.

4) 건물개선 디자인 제시

-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물디자인 개선방안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건축물 복원 매뉴얼

5) 색채기준

- 원색(R, Y, YR), 형광색 등 금지색 지정, Y계열에서 채도가 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경고 및 벌금을 부과
- 원색(R, Y, YR)이외의 색은 채도 2를 초과하지 못함. 상표의 원색 면적이 넓은 경우 건물의 20% 이상 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 전통건조물이나 자연소재에는 착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조건조물이 많아 나무색(소재색)을 권장
- 금지색으로는 노랑, 보라, 적색계통의 색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을 금지

6) 경관서포트 제도

- 가나자와시는 시민과의 경관학습, 경관교육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이뤄나가고 있음.
-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진을 촬영하여 개선효과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모색

7) 가나자와 지역 활성화사업과 공공디자인 전개

<세계도시 구상과 도심 르네상스 계획>

-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가나자와는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이나 피해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지만, 쇠락한 시골마을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하였음.
- 대도시로의 인구이동, 중심지의 상업화를 비롯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대형할인점의 진출, 자동차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은 지금까지 중심시가지가 길러온 다양한 도시기능의 저하를 초래
-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나자와 시는 1995년 ‘가나자와 세계 도시 구상’을 계획하고, ‘도심 르네상스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가나자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최우선 중요시책으로 지정
- 이는 대규모 도심의 급속한 성장보다,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중심시가지의 활력과 매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임
- 가나자와는 지역골격을 유지하는 가나자와성과 켄로

쿠엔,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조를 비롯한 중심시가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을 지니고 있음. 그리고, 예능, 전통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 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활기와 교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추진하는 것임.

8) 경관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전통 환경보존지구 정비사업>

-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개성 있는 역사문화경관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조망경관보존구역 내 고층건축물 제한 등 각종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설계자가 직접 경관 진단서 및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어 공간변경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가나자와 시는 혜택 받은 자연과 지형을 배경으로 중심시가지의 약 절반 이상을 ‘전통 환경보존지역’ 및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가로경관 측면에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비를 진행하였음.
- 2006년 3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정비 지구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이후, 경관과 교통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나자와만의 도로 표식 간판설치를 추진하였음. 또한 전통 환경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전통 환경 보존 지구로 정하고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에 필요한 각 지역의 건축물 및 조형물의 규모, 위치, 색채, 의장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의 개성 풍부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고마치나미’의 ‘고’는 ‘역사적 경관과 정서를 지닌 가로’를 뜻하는 ‘古’와 ‘작다’는 의미의 ‘小’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고마치나미’(小町並み)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사무라이 가옥, 옛 가옥, 사원 등 건축물이나 유사 양식을 계승한 건축물이 모여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만의 분

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경관을 정비했음.

- 고마치나미 사업은 ① 보존이 필요한 가로를 ‘고마치나미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② 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기준’을 정하고, ③ 보전구역에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④ 시가 개축과 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 구역 내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고마치나미 보전건조물’로 등록하고, 시와 소유주가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구역 지정과 보전 기준은 주민과 전문가(대부분 가나자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고마치나미 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가 일상에 흐르는 가나자와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었음.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고마치나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다. 히가시차야 도오리는 이제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이미지 공간.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

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

-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 또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



[그림 3]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지구

9) 지역 보행 공간 정비사업

- 지역 내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하여 가나자와 성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역사유산이나 상점가를 즐기며, 둘러볼 수 있도록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 이러한 정비에도 모두 지역의 특성과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디자인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음. 가나자와 무사 가옥 주변의 공중전화 박스와 공중화장실은 옛 무사가옥의 구조와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그림 4] 공간, 시설물(인도, 블라드)

10) 아트퍼니처 설치

- 가나자와 시의 아트퍼니처 설치에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가나자와의 특성을 살리려는 시의 정책으로 가나자와 역에서 21세기미술관을 잇는 가로축을 중심으로 예술성이 넘치는 조각 작품 및 공예작품을 설치. 이를 위해 가나자와 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공모한 뛰어난 조각 작품을 설치하고, 기업의 쇼 윈 도우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가로경관의 매력을 높여 지역 전체에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

11) 가나자와 시넷물 정비사업

- 가나자와시 대로상의 정비에 따라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도심 축 보행공간의 정비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물, 녹음 등 자연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창출. 특히 예부터 내려오는 가나자와시의 전통 수로를 적극 끌어들이어 시넷물이 흐르는 도심의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더욱 높였음.



[그림 5] 가나자와 수로

12)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조밀한 구성

- 조밀한 구성은 각각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물, 바람, 녹음 등 풍부한 자연과 이들 요소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지고 유지되어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서 질높고 풍부한 거주공간과 쾌적함이 나옴.
- 가나자와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중심의 도로정책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 통행의 감소시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도. 또한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활발한 지역 교류활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공간에서 보행자 중심의 보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스트리트퍼니처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재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음. 가나자와시는 전통 환경 보존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로 시설물에는 가나자와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음.



[그림 6] 가나자와 가로시설물

- 가나자와 시는 특히 중심시가지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및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시민 교류 활동에 큰 중점을 둬
- 지역교류 활동사업으로는 마에다 자료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문예관, 가나자와 노카쿠 미술관 등 교류 활동 시설을 개설하고 이들 문화

시설에 있어 합동기획전 전개 및 공통입장권 발행을 통하여 관광객의 회유성 유도 및 시민 참여활동을 유도.

- 시가 앞에서 끌고 시민이 뒤에서 미는 전통 문화 보존 정책과 시민들의 3분의 1을 아마추어 예술가로 만들 만큼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는 '문화 도시' 가나자와 시를 만드는 밑거름.



[그림 7]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가나자와 시를 진정한 문화 도시로 만든 것은 시민 예술촌이다. 시는 방직공장이 폐쇄되면서 남은 9만 7000m²에 이르는 광대한 부지를 사들여 지난 1996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 쉼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들어찼던 공장은 문화 공연을 위한 연습실로 탈바꿈했고, 주차장은 미술 작품공간과 공원으로 변신.

- 예술촌은 시민들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개방. 사용료도 6시간에 1000엔에 불과. 직원은 밤 9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이후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



[그림 8]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13) 시사점

- 지역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관계 주체와의 합의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

한 프로그램을 함께 세우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과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
경을 형성하는 창조도시를 조성
-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
성을 높였으며, 가로 시설물에 지역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있음.
- 공간의 기능성 · 시각성 · 기호성 · 무대성 이외에 더
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 인프
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
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
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2. 교토시

1) 교토시의 현황

- 교토는 일본 혼슈[本州] 중서부에 있는 교토부 부청

소재지(府廳所在地)로서 긴키[近畿] 지방의 중심도시. 794~1868년까지 1,000년 이상 황궁(皇宮)이 있던 일본의 수도였으며, 불교문화와 직물업·요업 등의 전통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현재에는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서 면적은 828km², 인구 1,470,000명.

2) 교토시의 도시공간

- 교토시의 지형은 동,서,북의 세 방향이 산(히가시야마-東山, 니시야마-西山, 키타야마-北山)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교토의 동서로 자리잡은 가모강과 가츠라강은 도시구조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중요한 역사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음.
- 헤이안쿄오가 건설된 이래, 교토는 바둑판같은 골격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음. 전통적 건축양식인 마치야(町家)는 건물의 전면폭이 좁고 길이가 깊은 건축물로서, 교토에서는 마치야에 의한 고밀도의 도시공간이 형성되었고, 좁은 길을 중심으로 하고 마주보는 마치야들에 의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음.

3) 교토시의 역사문화경관

- 교토시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역사경관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이전인 1972년 '교토시시가지경관 조례'를 제정하였음. 이 조례 제정으로 미관지구 지정, 역사지구 보전, 옥외광고물 규제 등을 통한 교토의 독자적인 경관행정이 출발하게 되었음.
- 시가지 주변의 산록이나 사가노의 전원지대와 같이 역사적 건조물, 정원, 유적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일체가 되어 형성한 역사경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보존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역사경관에 대해서는 1966년 제정된 '고도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경관지역 60km²가 역사적 풍토보존구역으로 특히 중요한 지구 15km²가 특별보존구역으로 지정됨
-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을 받지 않아 전통적인 유적·유물이 피해를 입지 않아 교토에는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간직.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노[能 : 일본의 전통연극]·한문학·서화·다도·꽃꽂이·통속소설 등이 성행하여 독특한 일본적인 문화를 형성.
- 교토의 문화유산은 1994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교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적용된 기준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것과 어떤 양식의 건축물 혹은 경관에 대해 훌륭한 본이 된 것이었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고, 일본의 문화를 대표하는 교토의 문화재 중에서 주변의 풍치, 경관까지 고려할 때 특히 보존이 잘되어 있는 기요미즈데라(청수사), 료오안지(용안사), 니조조 등 17개의 신사와 사찰이 세계문화유산 명단에 등록되어 있음

4) 교토의 역사지구 보존사례

○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

-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교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교토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장소와 유물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이를 통해 사람 등은 도시내외부에 중요한 문화적 자산과 훌륭한 사당,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1200

년 동안의 역사를 걸으면서 삶의 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공간임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

- 문유회랑의 조성 및 기획주체는 '재단법인 교토시 문화관광자원보호재단'임.

재단의 주요활동은 문화적이며, 관광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의 자원을 보존하고, 전통예술과 행위를 유지 전수하는 것을 도우며,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일깨우고, 기부금을 통해 펀드를 만드는 것임.

- 문유회랑은 3개 부분(東山, 中京, 下京)으로 나뉘어 있으며, 동산(東山)지역의 문유회랑은 청수사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어 산넨자카(産寧坂)를 지나 니넨자카(二年坂), 그리고 기온(紙園)지구에서 가모가와 하천과 만남. 이곳에서부터 중경(中京)지역의 문유회랑이 시작됨

5) 교토시 경관정책

- 고도보존법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과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는 고도의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는 풍토 특별보전지구를 1930년에 지정. 전통적 건조물군 보

존지구는 시가지 경관조례에 의거 특별수경보전지구를 참고하여, 1975년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제도화.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지원

(1) 경관정책 기본 컨셉

- 교토시는 5개의 기본방침아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유도방안을 검토하여 2007년 9월부터 새로운 경관정책을 실시
 - ① 교토의 바람직한 경관형성 50년, 100년 후의 교토 장래를 내다본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 만들기 건물 등은 사유 재산이라도 경관은 공공재산 교토의 훌륭한 경관을 지키고 미래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라는 의식
 - ② 5대 기본방침
 - 분지경을 기본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경관형성
 -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창조와 조화를 기본으로 한 경관형성

- 교토다움을 살린 개성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경관형성
-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경관형성
- 행정, 시민, 사업자 등의 파트너쉽에 의한 경관형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경관정책 추진

(2) 교토시의 경관정책의 구성

○ 경관정책은 5개의 요인과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토 시에서는 이 경관정책을 위하여 2007년에 도시계획과 시의 법률을 변경

- 법률 제정 - 조망경관 창생조례, 건물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특례허가의 수속을 정한 조례
- 법률 개정 - 시가지 경관정비조례, 풍치지구조례, 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자연풍경 조례 교토시의 신경관정책 5개 요인과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의 높이

- 건물의 높이는 도시경관과 시가지의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높이제한을 이전보다 낮추고, 동시에 높이제한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
- 역사적인 시가지, 산기슭 주택지, 공업지역 등으로

고도지구에 의한 높이의 최고 제한을 낮춤

- 도시전체의 높이 구성은 상업 업무의 중심지구인 도심부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의 높이를 인정하고, 이 도심부에서 세 방향의 산기슭으로 감에 따라 점차로 높이의 최고 한도를 낮추는 것을 기본

(도심간선도로변지구 : 45m - 31m)

(업무,주거공존지구 : 31m - 15m)



[그림 9] 고도지구 건물 높이 개선

② 건물 등의 디자인

- 건물 등의 디자인(형태, 재료, 색채 등)은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이를 위해 규제지구를 이전보다 넓게 지정하고, 동시에 디자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세밀하게 정함
- 경관지구의 확대 : 미관지구의 확대, 미관 형성지구의 신규지정
- 건조물 수경지구의 확대

- 풍치지구의 확대 : 세계문화유산주변 등으로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디자인 기준의 상세화, 명확화 : 종별 기준에서 지구별 기준으로, 색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 공작물 규제의 강화 : 휴대폰 안테나, 태양광 발전장치, 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 기준
- 지붕의 색채 : 기와는 원칙적으로 그을린 은색/동판은 소재색 또는 녹청색/동판이외의 금속판 및 기타 지붕재료는 원칙적으로 광택이 없는 짙은 회색, 광택이 없는 검정
- 외벽의 소재 : 주요한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광택이 없는 것으로 할 것(유리 및 자연소재는 제외)
- 발코니 :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벽에서 튀어나오지 않을 것, 단 낮은 건축물 또는 공공의 공터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음
- 외벽의 색채 : 주요한 외벽에는 다음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착색을 하지 않은 자연소재는 제외로 한다. 적색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황적색 계열의 색상으로 채도가 6을 넘는 것
- 문, 담, 울타리 : 자주식 주차장이나 주륜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 담, 혹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거리의 연속성을 배려



연도형 미관지구



구시가지형 미관지구



역사유산형 미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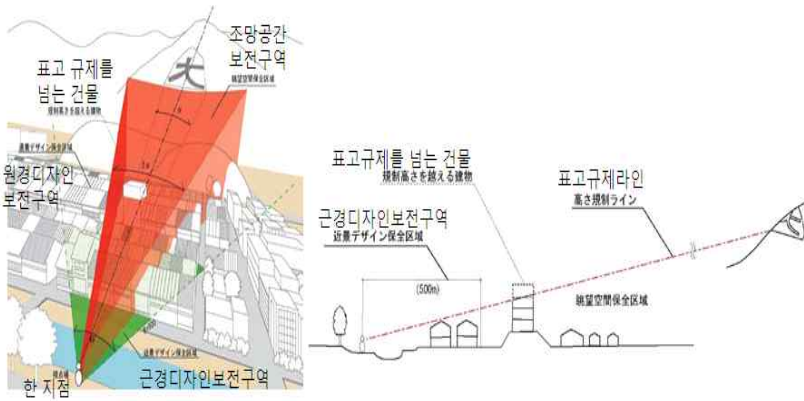


연도형 미관형성지구

[그림 10] 경관지구(미관지구, 미관형성지구)의 디자인이미지

③ 조망경관과 차경(借景)

- 2007년도 전국에서 최초로 “조망경관 창생조례”를 제정하여 38군데의 조망경관과 차경의 보전을 꾀함.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역사적 자산 주변과 시가지가 가까워 건축물 등의 높이와 디자인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하지 않으면 조망경관과 차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38군데를 심의회에서 추출.
- 조망경관창생조례 : 건축물 등의 표고규제와 디자인 규제, 제안제도
- 조망경관을 보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조망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 조망경관보전지역은 각각 필요한 규제 내용에 따라 다음의 3구역으로 구분.
- 조망공간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 부터 시대상(視對象)으로의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건축물 등의 최고부가 넘어서는 안 되는 표고를 정하는 구역
- 근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태, 의장,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 원경디자인보전구역 : 한 시점으로부터 보이는 건축물 등이 훌륭한 조망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외벽, 지붕 등의 색채에 대하여 규제하는 구역



[그림 11] 교토시 조망경관 보전지역

④ 옥외광고물

○ 도시경관은 장녀과 건물뿐만이 아니라 온갖 도시 활동에 의해 형성. 교토시에서는 시내전역의 옥외광고물을 규제함으로써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규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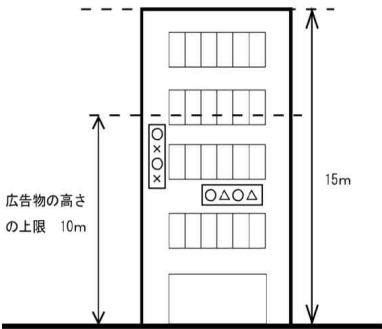
-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을 규제
- 옥상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을 시 전체에 금지
- 점멸조명의 옥외광고물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 옥외광고물의 표시위치, 크기, 색채 등의 규제 강화
- 도심부의 간선도로변 등의 도로상공에 돌출된 간판 금지

○ 우수한 옥외광고물의 유도 :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 기준의 완화, 우수한 옥외광고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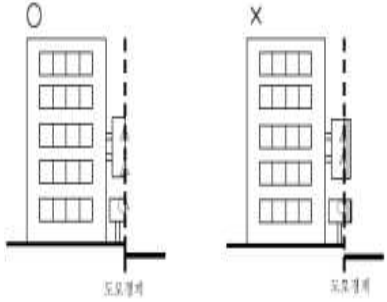
- 위반 광고물 대책의 추진
- 옥외광고물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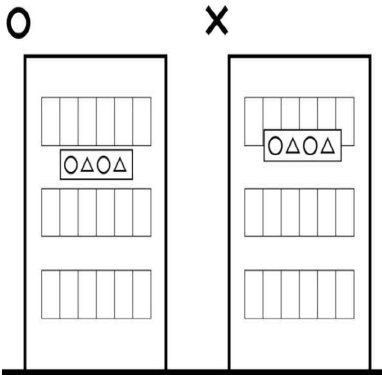
양호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을 위해 옥상간판을 금지



간판에 표시할 수 있는 높이는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건물의 2/3이하 중 더 낮은 쪽으로 함



도로의 상공공간을 개방하여 양호한 거리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일부지역에서는 간판의 도로돌출을 금지



창문 등 개구부와 벽에 걸쳐진 간판은 건물의 디자인을 손상하기 때문에 금지

[그림 12] 옥외광고물 규제

⑤ 역사적인 거리

- 교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생활문화를 전하는 교마찌야는 역사도시, 교토의 경관기반을 구성한다. 그 보전과 외관의 수리(修理), 수경(修景)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고 있음.
- 지구지정제도의 활용 : 역사적인 거리가 남아있는 지구를 지정하여 지구내 건물을 보전함과 더불어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을 하고 있음.



안네이자카지구(약 8.2ha)



기온신바시지구(약 1.4ha)



사가토리이모토지구(약 2.6ha)



카미가모지구(약 2.7ha)

[그림 13]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문화재보호법)



료가츠지지구(약 37ha) 카미노코가와지구(약 2.1ha)

[그림 14] 역사적경관보전수경지역(시가지경관정비조례)

○ 건물 단독체로서의 보전책 : 경관중요건조물의 지정(경관법)

- 건물을 경관중요건조물 등으로 지정하여 외관의 변경을 허가제로 함과 동시에 수리, 수경에 대하여 조성하고 있음.
- 역사적 의장건조물의 지정(시가지경관정비조례)
- 경관중요건조물을 지역의 핵으로 하여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역사적 경관을 재생

○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 개수조성모델사업

- 교마찌야 거리만들기 펀드는 교토시와 국가의 지원, 시민으로 부터의 기부에 의해 창설된 교마찌야를 보전, 재생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교마찌야의 개수(改修)를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그림 15] 교마찌야 보전·재생

3. 나라시

1) 아스카(明日香) 보존지구

(1) 아스카 개요

○ 배경

- 아스카무라는 약 1,400년 전 100년간 일본의 수도였으며 법률을 지닌 첫 고대국가로 확립. 미무라 합병이라 하여 1956년(쇼와31년) 7월에 다카이치궁 판합마을, 다카이치 마을, 아스카 촌의 3개 마을이

합쳐져 오늘날 아스카무라가 탄생

- 아스카 마을 내에는 신사, 절, 고분 등 매장문화재 및 많은 역사적 문화유산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일체되어 역사적 풍토 간직. 화제가 된 주요 발견은 1972년 (쇼와 47년) 3월, 다카마츠즈카 고분에 남녀 인물 군상, 사신의 극채색 벽화가 발견되면서 고대사 붐을 일으켰음. 최근에는 키토라고분에서 스자쿠 등의 벽화, 아즈카 연못 유적에서의 토미모토돈, 거북형 석조물, 아스카경 원지유적이 잇따라 발견되고 아스카무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일반적 개황

- 면적 : 24.08km²
- 토지이용 : 대부분 임지이며, 긴테츠 아스카 역전과 면사무소 주변으로 시가화가 도모되고 있다.

| 구분 | 수전 | 밭·과수원 | 산림·기타 | 택지 |
|--------|-----|-------|-------|----|
| 면적(ha) | 346 | 209 | 1,760 | 93 |
| 구성비(%) | 14 | 9 | 73 | 4 |

- 산업별 인구 : 제 2·3차 산업은 증가추세며 제1차 산업 인구는 감소추세
- 관광객 추이 : 연간 관광객 수는 1982년(쇼와57)해의 175만 명 이후 계속 감소되었으며 현재 80만 명 정도

(2) 아스카보존재단

① 설립 배경

- 쇼와 41년 「옛 도시 보존법」 제정과 동시에 391ha가 역사적 풍토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후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아스카지방의 보존구역 확대,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의 구분, 간선도로, 역사공운, 자료관 등의 설치와 같은 환경정비시책이 강구. 이에 따라 아스카보존을 민간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아스카보존재단이 설립

② 주요활동

- 아스카무라의 신사, 절 등의 역사적 문화유적과 문화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신사의 경우 보존업무를 수행할 시 국가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사찰과 신사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민과 관이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의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

③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

- 아스카보존재단의 운영기금은 국가(5억 엔), 기업 및 경제인의 기부금(5억 엔)으로 총 10억 엔을 가지고 운용.

(3) 아스카법제정 이전과 이후의 변화

- 사회 경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금도 다시금 아스카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상태로 귀중한 역사적 풍토가 유지·보존. 아스카법의 1·2차 정비계획 및 현재 수행중인 3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 하수로 (88.5%보급률), 교육시설 등의 사회 자본 정비가 이루어짐.
- 정비기금으로 디자인 규제 조성, 소규모 논, 과수원 등과 같은 보조 대상이 되기 힘든 정비계획과 맞물려 치밀한 정비 전진. 또한 근처의 시읍면에 비교해서 생활환경은 훨씬 향상.

(4) 아스카법의 장·단점

- 아스카법제정 당초는 농업이 주된 산업. 제1종 역사적 풍토보존지구에서는 현상 변경의 규제로 토지가 격이 주변 시읍면보다 싸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음. 또한 서양풍 디자인 등 건축물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농지 담당자 부족)에 의한 농업 침체와 땅값 하락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25

년 가까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사회 정세의 변화와 함께 제정 당초의 불만은 희미해지고 있음.

- 아스카법의 규제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가 마련되면서 마을 주민의 불만은 다소 사라졌으나 마을 만들기예 대한 주민 의욕이 저하되고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을 전환하여 지역에 대한 자량과 애착을 통해 촌락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음.

(5) 주민과 함께 하는 고도보존

- 아스카법은 문화재보존·주민 삶의 향상·역사환경을 긴밀하게 끌어내기 위하여 제정된 법. 따라서 경작지, 도로, 산 등의 주민과 직결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 주민을 위한 규제내용은 주로 「옛 도시 보존법」에 준하여 10년간의 정비계획을 책정할 것(현재 3차 정비계획 수행 중), 아스카무라 정비 기금(31억 엔)을 설치하여 그 운용 이익으로 생활 안정 향상을 위한 치밀한 시책을 전개할 것, 기타 고정 자산세의 감면 조치, 토지의 사기입 제도 등의 우대조치가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역민의 동참 유도.

(6)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과 및 향후 계획

① 제 3차 아스카무라 종합계획

○ ‘태어나서 좋고, 살아도 좋고, 와봐서 좋은’ 고향 아스카는 생기 있는 풍부한 생활환경 조성과 아스카무라에 대한 동경을 고취하고 대접의 교류를 통해 경제를 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생기 있게 살 수 있는 풍부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아름다운 거주 공간의 창조(촌락 환경 정비, 경관 저해 요인의 개선)
- 만엽 길의 네트워크화(파크 앤 라이드, 주요 보도 정비)
- 생활관련 시설의 정비(도로, 하수로 등)
- 아스카의 역사·만엽의 동경을 고취한다.
- 마을 주민과 국민의 협조에 의한 보존(국민 참가의 인수 태세, 계획적인 발굴조사 등)
- 아스카 로맨스를 체감하기 위한 복원 보존(궁 흔적, 유적의 복원, 전시학습시설의 정비 등)
- 정보 제공에 의한 매력의 재발견(관광안내판, 정보 제공 등)
- 만엽의 전원 재생(강, 산, 농지 재생)
- 아스카 브랜드를 만들고 대접하여 강한 교류형 지방 산업 발전

- 아스카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창생(특산물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의 추진 등)
- 대접함의 산업 밥풀과자(번잡의 거리 정비, 숙박시설 건설 촉진, 역전 정비 등)

② 제 3차 아스카무라 정비 계획(실시 계획)

- 아스카법에 기인해 아스카무라 정비계획은 귀중한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고 주민 생활을 보다 풍부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 기본 이념은 아스카무라의 역사적 풍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있게 산다는 것에 의해 주민 생활의 안정 향상이나 농림업의 진흥, 지역 산업의 진흥 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폭넓게 전개할 필요
- 역사적 풍토의 보존과 활용이 양립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유지·보존·활용
 - 역사적 풍토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시책 추진
 - 역사문화 시설 등의 정비, 주요 관광도로 정비, 경관 창출 등
 - 농림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정비
 - 포장 정비, 종합 교류 거점 시설 등
 - 농·상공에 걸치는 종합적인 시책의 전개
 - 공예 체험관, 체험 학습관 등 종합 교류 시설
 - 생활환경의 정비 추진

- 도로, 하수로, 하천, 소방시설, 학교 교육시설 등
- 유적 조사 등의 추진

- 유적 범위 확인 조사, 사적지 매수 등

○ 계획기간 : H12년(2000)~H22년(2010) 10년간

사 업 비 : 331억 33백만 엔

○ 경관보전 사업의 개요(정비기금, 교부금)

- 아스카무라 정비기금은 역사적 풍토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 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아스카무라가 마련. 1980년부터 1984년까지 5년에 걸쳐 나라나 현의 보조를 받아 총액인 31억 엔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이익(2005년 약 500만엔)으로 마을 경관의 보전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관리 조합 지원, 소규모 농로 정비, 디자인 조성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한 각종 기금을 조성
- 또한 교부금은(역사적 풍토의 창조적 활용 사업 교부금 : 1억 2천 5백만 엔) 2000년도에 나라현에 창설되고 정비 기금과는 별도로 역사적 풍토의 유지·보전·활용을 위한 사업에 지원. 마을에서는 이 교부금을 활용함과 동시에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학습의 장소로 이용

Ⅲ. 정책적 시사점

1. 가나자와시

1) 가나자와성, 겐로쿠엔, 히가시차야 도오리, 무사촌

- 가나자와는 지역골격을 유지하는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 정원, 그리고 도시를 흐르는 수로와 조망을 배려한 도로 등 역사적인 도시구조를 비롯한 중심시가 지에 많이 남겨져 있는 문화적 유형 자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그리고, 예능, 전통공예 산업기술로 이어지는 무형 자산 등 가나자와의 전통문화가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이루고, 활기차게 사람이 살고, 모이고, 어울리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가나자와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활기와 교류가 넘치는 중심시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 골목에 문화의 손길이 닿아 골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진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장 대표적인 곳이 히가시차야 도오리(東茶屋通り)이다.
- 히가시차야 도오리는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

자 이미지 공간. 이 거리는 가나자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일본 전통차, 가가유젠(加賀友禪, 일본 전통의상 염색법), 금박(金箔), 구타니 자기(九谷焼) 등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거리로 재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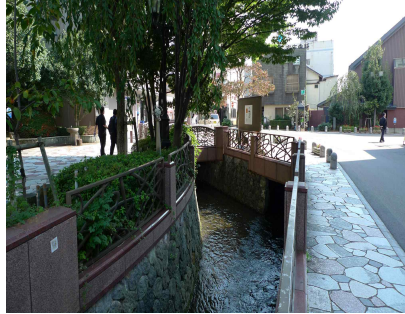
[그림 16] 히가시차야 거리

- 이 과정에서 건축·조경·마케팅 전문가가 투입되어 건축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와 재질, 외벽의 색채와 재질, 외벽의 위치, 식재(植栽)와 문이나 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드러나는 설비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과 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고, 업종 선정과 인테리어,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또한, 간판·안내판·안내지도 등의 공공 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을 정비해 전체 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걸으면서 문화를 느끼는' 골목을 만들었다.



[그림 17] 히가시차야 골목 가로정비

- 특히 가나자와시는 용수조례를 만들고 이를 추진하여 시를 감싸고 있는 해발 3,000m의 북알프스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시내 하천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도시전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풍요로운 도시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림 18] 가나자와 시내 하천

2) 시사점

- 공주시 제민천을 수량이 풍부한 살아있는 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걷고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장소로 변화시켜야 할 것임
- 자연의 요소를 공공디자인에 활용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고, 가로 시설물에 공주의 전통 건축물의 구조 및 소재, 패턴 등을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가로공간의 기능성 · 시각성 · 기호성 · 무대성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공주시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또한, 인프라 정비, 환경미화 차원에서 아름다운 골목을 수동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

게 쾌감과 감동을 주고, 그것이 생활향상, 문화예술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2. 교토시

1) 교토시 경관정책

- 경관 중요 건조물의 지정 (단체정비-역사적 경관재생사업) 역사적인 건조물이나 교토다운 정취가 있는 경관을 보전재생하기 위해 경관 중요건조물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고, 경관상 중요건축물의 외관수리시 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2) 전통건조물 보존지역 답사내용

- 전통건조물 보존지역의 하천을 정비하고,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하여
- 역사지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통해 도시를 창조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접근방법으로 "Walking around town" 활용으로서, 이 슬로건은 문유 회랑(文遊回廊)을 만들어 도시민이 문화로서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교토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유회랑(文遊回廊)이란 교토의 "기온지구와 산넨자카, 니넨자카 등 전통 거리 역사적 장소와 법륜사 5층목탑, 금각사의 불교 유적 등을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는 "문화 복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확대되어 교토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를 연계한 친환경 관광으로 연결됨



[그림 19] 교토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내 하천



[그림 20] 기온지구, 산넨자카지구

3) 시사점

-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릉, 고마나루, 연미산 등 역사 문화유적을 회랑방식으로 연결하고 이야기와 보행로로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공산성~무령왕릉 주변의 거리를 전통가옥을 조성하고, 기념품 및 토산품, 먹거리 상가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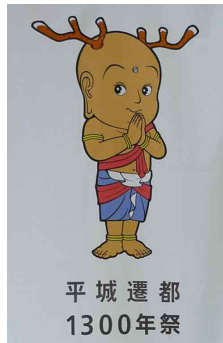
3. 나라시

1) 나라시 경관보존정책

- 형성배경은 1990년 나라시 도시경관조례 제정을 시점으로 주민과 협의를 시작하였다.
- 1994년 나라마찌 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적 보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나라마찌 보존지구 답사내용

- 나라마찌는 평성경 바깥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나라시 경관형성사업이 1992년에 시작되었다.
- 현재 나라마찌에는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 상가 모습이 남아 있고 1990년 4월 나라마찌도시경관형성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 전통역사거리인 나라마찌는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한 규제와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보존·개발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행정기관 및 번문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닌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조성한 ‘나라지역사회연구회’에서 발의하여 추진된 정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림 21] 평성경 복원 모형 [그림 22] 평성천도 1300년 축제 캐릭터



[그림 23] 나라마찌 전통가옥

3) 기시하라 이마이쵸 (전통건조물보존지구)

- 이마이쵸는 전통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부 가옥의 70%이상이 에도시대(17C~19C)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큰 화재를 입지 않아 이마이쵸 거리는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고대 일본의 가옥이나 주거생활을 엿 볼 수 있다. 대대로 계승되어 온 상가(주조업, 금속고예, 목재상등)가 있고, 이마이마치나미 자료관에서는 복원된 에도시대의 마치아에 앉아 당시의 생활을 그려볼 수 있다.
-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는 현재에도 지속적인 보존작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오래된 가옥이나 대대로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가옥의 경우 이를 관광상품

(가옥관람, 제조품 판매)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24] 이마이쵸 전통건조물보존지구

4) 시사점

-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마치 보존을 위한 조례 및 관련 정책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역민들의 발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정책의 실행 또한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 공주시는 백제시대 건축물과 조선시대의 전통건축물을 조화롭게 조성하고, 전통역사거리를 재현하여 지

역 활성화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도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문객 증가 및 지역인재 흡수, 지역 고유의 산업, 관광산업, 지식산업 등의 투자로 이어지며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원천이 된다.